

# 베트남전쟁의 심리전 사례 분석

文 英 一

(전 국방대학원 초빙교수, 예비역 육군중장)

1. 서 언
2. 베트남전쟁의 심리전
3. 심리전 실전 사례
4.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및 북한요원의 심리전
5. 맺 음 말

## 1. 서 언

베트남전쟁 이후 전국이 공산화되어 세계 최빈국(最貧國)중의 하나로 전락했던 베트남은 최근에야 비로소 국가재건을 위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전쟁당시의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를 불문하고 우호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베트남전쟁을 상기한다”는 것은 새

삼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라의 안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미래전쟁(未來戰爭)에 대비하기 위한 과거전쟁의 연구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될 일상적인 과업”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베트남관계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베트남전쟁의 심리전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 경험적이고도 실증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 또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 공산주의혁명의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64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던 제2차 베트남전쟁은 전장 일선에서 볼 때 미군과 연합군이 전술적 승리를 거듭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이르러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전장을 이탈하였으며, 1975년 4월 30일에는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한 남베트남군이 항복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미국 역사 이래 최초(最初)의 패전(敗戰)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sup>1)</sup>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패전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첫째,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전략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치전략과 군사전략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국가 정치전략요소가 국가 군사전략요소를 과도하게 지배하였기 때문이었다.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국가 군사전략과 트루만 대통령의 국가 정치전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 끝내 승리 없는 휴전이 되어 버렸던 사실과 같은 맥락이었다.

둘째, 당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전쟁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이다.<sup>2)</sup> 당시의 정치지도자들이 현재 미국의

1) 1975년 4월 25일 Hanoi 회담석상에서 미군측 대표 H. G. Summer 대령이 월맹측 대표 Tu 대령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실제 전투에서는 당신들이 우리를 한번도 이겨본 일이 없지 않소?”라고 말했다(해리 서머스 저, 민평식 역, 『美國의 越南戰 ‘戰略’』, 兵學社, 1983, p. 14).

2) 문영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사』, 을지서적, 1999, p. 356; Allan R. Millett &

부시행정부와 같이 “대 테러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전쟁지도에 임하였다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국가안보전략은 성공리에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쟁지도부는 베트남전쟁의 단기종결을 위해 오로지 ‘현 남베트남정권의 보존’만을 유일한 전쟁목표로 삼아 ‘전쟁승리’ 자체를 희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남베트남의 멸망을 방치하였던 것이다.

셋째, 당시 남베트남 정권의 비 정통성과 부정부패를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민족국가형성 이후 1,000여 년간에 걸친 중국의 지배와 100여 년간의 프랑스 지배를 통하여 민족적 저항정신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군이 진주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또다시 프랑스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민족주의자로 국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호치민(Ho Chi Minh)에 의해 북베트남 정부가 성립되었으나, 남부에서는 프랑스 식민정권의 하수인이었던 바오다이(Bao Dai)의 허수아비 정부가 들어섰다. 또한 프랑스가 미국으로 대체되었을 때도 군주제도(君主制度)가 대통령제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남부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토지개혁도 없이, 봉건제도와 식민지 시대 부역관료와 약습들도 청산되지 못한 채,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정부에 의해 그대로 승계 됨으로써, 극심한 사회혼란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북베트남의 통일전선음모와 지원, 간접침략과 함께 남쪽 국민들의 조직적 저항이 자행되었으며, 남베트남은 우세했던 전술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전쟁은 대전략(大戰略) 즉 국가안보전략(國家安保戰略)면에서는 실패한 전쟁이었으나, 군사작전 면에서는 분명히 성공해 가고 있던 전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65~67년의 시기에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필자의 관점에서도 전장은 분명히 승리를 향한 분수령을 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주민 심리전면에서는 그 같은 현

상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1965~67년에 있었던 베트남전쟁 초기의 심리전(心理戰)을 당시 전장현장의 생동감이 살아있는 전례(戰例)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귀한 전훈(戰訓)을 습득(習得)하고자 한다.

## 2. 베트남전쟁의 심리전

### (1) 베트남전쟁 및 심리전의 특징

베트남전쟁에서 심리전의 특징은 두말할 것 없이 베트남전쟁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전쟁의 특징은 당시 세계의 유행어였던 ‘해방전쟁(解放戰爭)’이요, 세계공산혁명주의자들에 의한 ‘인민혁명전쟁(人民革命戰爭)’ 바로 그것이었다. 더불어 당시 베트남의 국가안보 전략환경 즉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당시 북베트남이 시작한 소위 ‘해방전쟁’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전세(戰勢)는 더욱 기울고 있었다.

때문에 전장은 전선 없는 전장양상이었다. 적(베트공과 북베트남 정규군)은 남베트남의 전역에 기생(寄生)하고 침투하여, 극소수의 친(親)정부요원을 제외한 모든 계층을 망라한 인민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을 전투요원화함으로써, 전투요원과 일반인[良民]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들의 전투방식은 ‘게릴라전쟁’과 ‘비재래전(非在來戰)<sup>3)</sup>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의 심리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전투 현장에서 베트공과 월맹군은 물론 지방의 모든 주민에게까지 공산주의의 허실과 모순을 설득하고 공산화의 비참한 과정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둘째,

3) 비재래전(非在來戰 ; Unconventional Warfare) : 선전포고 없는 전쟁, 전선 없는 전쟁, 전투대형 없는 전투 등을 말함.

게릴라요원과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업이었다. 특히 장기간 적들에 의하여 점유되었거나 세뇌(洗腦)되어 온 지역이나 주민들은 자의나 타의를 막론하고, 적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곳에서 적 전투요원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민을 그들로부터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심리전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즉 인민이라는 물과 게릴라라는 물고기를 분리시켜 놓아야 했다.

셋째, 베트남전쟁의 심리전은 ‘민사심리전(民事心理戰)’이었다. 심리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민사작전시의 심리전’이라기보다는 ‘특수작전(特殊作戰: Special Warfare)시의 심리전’<sup>4)</sup>이라는 해석이 더 걸맞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전에서의 심리전 특징은 적의 비정규전(非正規戰) 및 비재래전(非在來戰)에 대응하는 심리전이었다. 그래서 심리전 대상이 베트남공부대와 현지 주민 그리고 아군(주로 남베트남 군) 속의 제5열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이 그 특징 중의 하나였다.

## (2) 북베트남 및 베트남공의 심리전

북베트남군과 베트남공은 국제공산주의혁명세력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전은 공산주의 방식(方式)의 심리전에 기본을 두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남베트남의 복잡하고도 취약한 국가안보전략환경에 가장 적절한 특수전 방식의 민사심리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심리전 주제는 자극적이고 격렬한 주제들로 첫째,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 식민지시대의 반민족적 관료체제와 봉건적 사회체제에 대한 비난과 저항선동이었다. 두 번째 주제는 식민지시대 기득권계층의 여전한 권력과 금력 그리고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과 반대계층들에 대한 저항선동이었다. 세 번째 주제는 구 제국주의 식민지세력이었던 프랑스와 대

4) 육군교육사령부, 『야교 33-5, 심리전』, 육군본부, 1988, p. 253.

를 이은 것같이 보이는 미국을 신 제국주의세력이요, 또 다른 식민주의세력으로 비난하고 전 국민이 이에 저항하라고 선동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 주제는 혁명전쟁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거나 처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를 철저히 억압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남베트남의 계층간, 종교간, 빈부 간의 갈등과 지역사회문제 등에 편승하여 체제불신 및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외국군에 관한 사소한 민사사항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사실무근의 사건을 조작하여 민족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과 베트남정부 그리고 베트남 국민 간의 이간을 획책하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의 심리전활동은 주로 점 단위 접촉에 중점을 두고 포섭된 조직을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 베트공의 조직과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였다. ② 소위 '해방지역'의 조직화대로 주민무장을 강행하였다. ③ 외국군(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철수를 선동하였다. ④ 국민일제봉기를 목표로 인민조직을 강화하였다. ⑤ 군사활동과 동시에 심리전활동을 강화하였다. ⑥ 전쟁공포증을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였다. ⑦ 모략 및 허위조작 선전선동에 치중하였다.<sup>5)</sup>

### (3) 미군 및 남베트남군의 심리전

주월미군(駐越美軍)의 심리전활동은 미군의 전형적인 공보활동과 야전에서의 대적심리전(對敵心理戰)활동, 그리고 남베트남군(민사) 심리전활동에 대한 고문 및 지원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그 주제는 베트남 내외의 국민들에게 베트공과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남베트남정부의 승리를 확신시키며, 베트공과 월맹군요원에게 귀순을 종용

5) 駐越韓國軍司令部, 『越南戰 綜合研究』,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pp. 927-928.

하고, 우방 및 연합군의 참전목적을 홍보함으로써, 베트남정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sup>6)</sup>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이 확대(1965년경)되면서 주월 미국대사의 지휘 감독하에 미군지원사령부(美軍事支援司令部: MACV)<sup>7)</sup>가 설치 운용되었다. 미 원정군사령부(美軍遠征軍司令部)는 미 정부기관인 합동공보처(JUS-PAO)<sup>8)</sup>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예하에 미 제4심리전단을 배속 받아 전군(全軍)은 물론 남베트남군의 심리전까지도 지원하였다. 특히 전국지역 별로 심리전협조센터(CPOC)<sup>9)</sup>를 설치 운용하였는데, 이 기구를 통하여 지역주둔 전 연합군의 지휘관 및 심리전 관계요원들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강구와 상호협조를 실시하였다. 특히 남베트남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Chieu Hoi(歸順計劃)를 상호 지원하여, 남베트남 전 지역에서 상당수의 베트남공과 북베트남 정규군의 귀순자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베트남군의 심리전 주제는 첫째, 베트남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치교육, 사기양양 및 후생대책과 홍보활동으로 국가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 및 유도하는 것이었다. 둘째, 우군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의료활동 등의 대민지원 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다. 셋째, 적군 및 적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선전 및 기타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공산당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남베트남군은 '정치심리전(政治心理戰)'에 주안을 두고 정치전 총국(政治戰 總局) 예하에 수 개의 정치전대대(大隊)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경찰계통을 통해서 대적심리전방어 및 테러활동제압을 위한 'Phoung Hoang' 계획을 수립, 실시하였고, 적군의 귀순을 유도할 목

6) 위의 책, p. 934.

7) MACV: the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주월미지원군사령부(駐越美支援軍司令部).

8) JUSPAO: Joint US Public Affairs Officer, 미합동공보처(美合同公報處).

9) CPOC: Center of Psychological Operations Coordination, 심리전협조센터.

적으로 Chieu hoi(歸順計劃)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던 것이다.<sup>10)</sup>

#### (4) 한국군의 심리전

한국군은 적의 군사작전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남베트남 지역사회에 대한 적의 침투 접근을 봉쇄하고, 적과 양민을 분리하기 위한 대적심리전과 대민심리전 그리고 대민지원 등에 의한 민사심리전으로 주민들의 정부지지 및 작전협조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투현장에서 적의 전투의지를 저하시키고, 조기투항을 유도할 목적으로 군사심리전과 민사심리전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독특한 자체 민사심리전 참모편제인 J-5, G-5에 의

10) 참고로 연합군 특히 베트남군의 심리전에서 역점을 두었던 이 Chieu Hoi(영어로는 Open Arms)계획에 대해 부가설명을 하고자 한다.

베트남어인 'Chieu'는 호소한다는 뜻이고, 'Hoi'는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즉 'Chieu Hoi'란 북베트남인이거나 그 쪽에 가 있는 자들에게 "베트남 측으로 오거나 되돌아 오라"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남베트남 통치지역 내에서 "베트남이나 북베트남 진영에 가담했던 자는 언제, 어디서라도 남베트남 체제로 귀순해 오면 남베트남 시민으로 맞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베트남정부는 미 고문관들의 권유에 의해서 1963년 초부터 이 계획을 채택하였다. 미 고문관들은 이미 필리핀이나 말레이아(Malaya)에서 체험과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계획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의 이론적 근거는 적군에게 변절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적은 틀림없이 약화되며 반대로 적군에게 취사선택할 대안(代案)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으면, 적군은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이었다.

Chieu Hoi 계획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는 첫째, 베트남이나 월맹군에게 군사·정치적으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을 설득하여 베트남정부측으로 넘어오게 한다. 둘째, 무력으로 적의 군사력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간인의 지지를 잃게 함으로써 공산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귀순자들을 이용해서 아(我) 세력을 강화시킨다. 셋째, 귀순자를 통해서 남베트남 정부군 및 연합군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며, 이들을 군에 재복무시켜 비교우위의 가시적인 효과를 과시한다. 넷째, 베트남 상호간에 알력과 불신을 조장시킴으로써 그들의 하부조직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전체의 사기(士氣)를 저하시킨다. 끝으로 귀순자들을 재기(再起)시키고, 필요 있는 남베트남 시민으로 복귀시킴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하여 편성되고 운용되었다. 즉 주월한국군사령부의 J-5는 맹호 및 백마사단·청룡해병여단·건지단·100군수사의 G-5와 해·공군지원부대의 심리전 참모부를 통제하면서 자체 민사심리전중대를 직접 또는 파견(민사심리전 소대별로)하여 운용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물자 및 자금지원은 전체적으로 주월미군지원사령부(MAC-V)가 담당하였고, 각종 기자재 및 수송수단 등은 민사심리전중대가 ‘심리전협조센터(CPOC)’를 통해서 지원 받았다. 그리고 베트남당국과는 정치국과 동원국 등을 통하여 제반 과제를 협조하였다.

### 3. 심리전 실전사례<sup>11)</sup>

사회생활에서 한 인간(집단)이 타 인간(집단)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설득, 폭력 그리고 설득과 폭력의 혼용방법이 사용되는데 비해, 전장심리전에는 폭력과 설득을 병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쟁에서 심리전 그 자체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심리전은 전장의 분위기가 가열됨에 따라 조성되는 인간의 강박관념에 작용하여 특수한 효과를 창조해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惹起)시켜 적 병사들로 하여금 탈영, 투항, 집단반항, 변절 또는 소극적인 저항자세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적의 상황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심리전의 총괄적인 효과는 전쟁자체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정석·정량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투현장의 증언과 남겨진 서류 등에 의해 판단해 볼 때 남베트남이 비교우위

11) 문영일, 『월남전에 있어서의 심리전』, 『전사(제69집)』, 육군본부, 1968. 10. 30, pp. 21-39.

본 논문에 제시된 사례들은 필자가 월남에서 귀국직후 제출한 보고서 내용으로 상기 책자에 수록되어 있음.

에 있었음은 확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제시된 베트남전쟁 초기(1965~67년)의 심리전 사례들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례는 연합군의 심리전 사례와 효과로, 심리작전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지 작전부대로부터 수집한 ‘심리전 실화’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심리전 사례들 중에서 몇 건만 선정된 것인데, 앞으로의 연구에서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례들이다. 두 번째 사례는 북베트남 및 베트남 귀순자들의 진술자료이며, 세 번째 사례는 북베트남군과 베트남이 평가하는 아군의 심리전 결과로 노획한 적 문서와 당시 북베트남의 신문·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부터 뽑아낸 사례다.

이 같은 증거들을 통해 보면, 적의 심리전에 어떤 약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연합군의 심리전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아군의 심리전이 베트남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방어심리전은 베트남 자체의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연합군의 Chieu Hoi 심리전요원의 암살 등에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연합군의 심리전 사례와 효과

### 1) 사례 (1): 베트남 지배 지역의 대민접촉 활동

베트남이 오랜 기간동안 준동(蠢動)하고 있던 Pleiku省 Duc Cowl 지역에 베트남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JUSPAO 예하 제245심리전중대의 분견대인 특수임무부대와 베트남군 정보부대(VIS)가 합동으로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작전에 착수하였다. Duc Co 특수임무 캠프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지방군들은 캠프에서 10~12km 범위 내에 위치한 촌락들을 찾았다. 이 부대 내에는 MEDCAP(의료지원)팀, 민사 및 VIS팀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VIS 및 JUSPAO의 정보자료들을 휴대하고 있었다.

심리전팀이 그 곳 주민들과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VIS는 사전에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대민접촉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 베트남정부의 국가목표와 목적이 강조되었는데, “베트남정부는 평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베트공은 오히려 이를 방해한다”고 강조하였다. 일행은 4일간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 해주고, 학교에 각종 교육재료를 제공해주면서 촌락의 공무원들이나 유지(有志)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민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방문하는 마을마다 베트남군의 전승포스터와 『자유세계(Free World)』 잡지 및 기타 발간물들을 배포하였다. 베트남주민 전체와 대화하는 것이 방문의 목적이었기에 민사·정보반은 MEDCAP(의료지원팀)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해보았다. 그리고 주민들이 곤란을 받고있는 사항들을 모두 기록해서 USAID,<sup>12)</sup> CARE<sup>13)</sup> 및 기타기관을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대부분 해결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대민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심리전을 전개한지 며칠이 안되어 일부 촌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베트공에게 향해 있던 마음이 증오감으로 전환되고 있는 증거가 역력히 들어 났다. 즉 그곳 주민들이 그동안 베트공들이 실시해 온 각종 강연회 동원, 주입식 공산주의사상 교육 등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것으로 미루어, “베트공의 유익한 무기였던 선전선동공세도 사실상 역효과 뿐이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에 따라 심리전 대원들은 적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주민들이 베트공을 미워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농사에 전 생명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베트공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양식을 징발해 갔기 때문이다. 한 마을에서는 그들에게 친절히 베풀어 준 모든 호의에 깊이 감동한 나머지

12) USAID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국(美國國際開發局).

13) CARE : 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to Everywhere Inc, 미국 대외 원조물자 발송협회.

베트남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남편을 간곡히 설득하여 베트남정부에 귀순하게 한 부인들이 8명이나 있었다. 불과 4일간의 작전으로 의료혜택을 받은 주민들만도 무려 800명이 넘었다.

## 2) 사례 (2): Chieu Hoi 계획 수행을 위한 도해식 책자 활용

Kien Phong 省的 Chieu Hoi 책임자와의 대담을 통해 이 지역을 담당한 JUSPAO 소속 미국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Chieu Hoi 계획의 대상이 되는 간부는 가족 중 베트남에 가담한 자가 있더라도 남은 가족을 동반하여 그곳을 떠나 베트남정부에 귀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절실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농민들의 지적 수준에 따라 말보다도 그림 같은 것을 이용하여 도해식(圖解式)으로 해설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Chieu Hoi 계획의 총괄책임자와 JUSPAO대표는 함께 ‘귀순자일기’라는 책자식 전단을 그림과 짧은 문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책자는 동족을 살상하는데 염증을 느낀 베트남 게릴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베트남정부의 전단을 입수하며, 또 이제까지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베트남정부의 품안으로 귀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만화로 엮어놓았다. 또한 이 책자에서는 베트남 대열을 이탈하여 남베트남으로 넘어오는 귀순자가 남베트남 군 전초(前哨)에서 극진한 환영을 받는다는 것과, 또 그 지방의 군수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무기에 대한 보상금을 후하게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귀순자는 Chieu Hoi 교육센터에서 잠시 정훈 교육을 받고, 지체 없이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재회하면서 기쁨으로 가득찬 모습 등을 연속적인 만화와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간명하고도 단계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그리고 Chieu Hoi 구제금, 무기보상금 등의 종별 및 금액에 대한 목록표와 안전통행증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책자들을 Vinh Long군(郡)과 Kien Phong군 일대에 배포하였다.

베트공 귀순자로서 당시 Chieu Hoi 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요원들이 경찰서에서 작성 제공해 준 베트공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해식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하나의 사례로 Vinh Minh 지역의 My Thuan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베트공 어머니에게 그 책자를 보여주었다. 그 책자를 열심히 읽어 본 그 노파는 곧 버스를 잡아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니 그곳에 은신하고 있던 그의 아들을 만나 그 책자를 보이면서 귀순할 것을 간곡히 권하고 또 애원했다. 이제껏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던 그 베트공도 책자를 직접 읽어 보고, 또한 모친의 간절한 호소와 그 동안 그리웠던 가족과의 상봉의 마음이 간절하여져 귀순의 길을 택하였다.

이와 같이 Kien Phong에서는 첫 주에 베트공 3명이 귀순해 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은 그 책자를 읽은 뒤 그것을 휴대하고 있으면 위험하리라 예상하고 버렸다. 그러나 그 속에 붙어 있던 안전통행증만은 땀이 범벅이 된 채 손아귀에 꼭 움켜쥐고 있었다. 이 도해식 책자를 배포해 주었던 Vinh Long군에서는 책자를 배부한지 일주일도 지나기도 전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3) 사례 (3): 군(郡) 교도소(矯導所) 수감 주민의 선무 활동

JUSPAO대표와 그의 지방보좌관은 경찰서장의 안내를 받아 군교도소(郡矯導所)들을 순방하였다. 감옥은 가축우리처럼 사방을 철조망으로 둘러싸 놓은 노천 감옥으로, 그 안에 18~60세에 이르는 부녀자들 다수와 그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이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 그들의 죄목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미군이 실시한 폭격 및 포격에 항의하기 위해 베트공이 시도한 반전(反戰)·반미(反美)데모에 참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순찰차가 방문하였던 전날 밤에는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온 밤을 그 속에 갇혀 지냈으며, 다음날에는 대낮의 폭염하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명은 병이 났음인지 몹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고, 미국인을 보자 모두들 분노하는 빛이 역력했다. 또한 방문중에

들은 이야기로 군(郡)에서는 구금중인 부녀자들을 4~5일간 심문한 후 석방할 예정이며, 석방할 때 그들의 복장에 '반 베트남 표어'를 물감으로 칠한 후 내 보낼 계획이었다.

순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JUSPAO대표는 곧 MAC-V 직속의 고문관을 찾아가, "군 교도소의 그 같은 처사는 주민들의 감정을 보다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베트남에게 역이용 당할 우려마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포로들에 대한 미 MEDCAP의 원조를 요청하는 한편 군수를 설득하여 구금된 부녀자들과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노천 철조망감옥에 갇혀 있던 부인들과 아이들은 건물시설로 이송되었으며, 또한 군수가 직접 주는 과자를 받아들고 놀라며, 한편으로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군수는 갑자기 환경이 바뀐 것에 공포감조차 느끼고 있던 부녀자들을 안정시킨 후 부녀자들과 함께 마루바닥에 앉아 이곳으로 옮기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이 양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베트남정부가 베트남의 테러로 시달림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이들에게 USAID에서 보내 온 식용유(食用油)와 CARE에서 보내온 의류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물품의 분배가 끝나자, 이들은 곧 석방되었다. 이 같은 조치로 석방된 부녀자들의 다수가 이 같은 호의에 상당한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녀자들이 그들의 오두막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베트남 간부들에 의해 그들의 감동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같은 죄목으로 베트남에게 체포되어 가족들로부터 격리 수용되고 말았다. 그러나 초기의 이 같은 쓴 경험들을 통해 많은 단점을 보완하면서 Chieu Hoi 사업을 계속한 결과, 마침내 많은 베트남인들이 베트남정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종전에는 군수(郡守)라면 인정 없고, 권위주의적이며, 불친절했기에 잠재적 귀순희망자도 "귀순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며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 군수의 태도가 확 바뀌어 군민(郡民)들간에 호평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군내(郡內)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유능한 지휘관으로서 신망을 얻었다.

#### 4) 사례 (4): 포격 비 제한구역 주민의 선무활동

Cai Cai 강과 Kien Phong 성 운하지역은 베트공의 활동이 증가되어 폭격이나 포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 제한구역으로 결정되었다.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소개(疏開)시키지 않으면 무수한 인명이 희생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에 JUSPAO지원과 MAC-V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진단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서 소개하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무제한 폭격범위를 정확히 알려줌과 동시에 베트남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로 소개하는 한 방법도 아울러 지시했다. 또한 유입될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식주를 제공해 줄 제반설비를 마련해 두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3,000여 명이 남베트남정부의 지시에 호응하였다. 소개된 주민들은 미리 준비된 수용소에 집단수용하고, 성(省) 직원들은 “이 지역을 베트공이 점령하여 근거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부득이 대폭격을 실시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이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처음으로 남 베트남정부의 통제하에 들어와 본 것인데, 이번 작전을 통해 양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까지 준비해 준데 대하여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 베트남을 재인식하게 된 난민들의 대부분은 베트공지역으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남베트남 통치하에 남기를 열망하였다.

#### 5) 사례 (5): CIDG(非正規民防衛隊) 활동

남베트남군 특수부대장과 미군특수부대장의 공동지시문에 의거 CIDG(非正規民防衛隊)<sup>14)</sup>의 민사심리전조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보자

는 시도는 1965년 10월 미 제2군단 전술작전지역 내에 있는 Plei Do Lim 특수부대에서 실패했던 것이다. 그런데 Plei Do Lim에서 최초로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민사심리전조가 많은 성과를 올리자 이에 자극되어 모든 특수부대 CIDG Camp에게 “민사심리전조를 편성 운용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이다.

CIDG 민사심리전조는 각 특수부대의 전술작전책임지역(TAOR)에서 활동했다. 아울러 TAOR내에 있는 촌락에 민사심리전 정찰대를 파견했다. 민사심리전조가 행하는 업무중에는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면담, 환자에 대한 왕진, 학용품 및 위생기구의 분배, 그리고 운동회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CA/PSY OP(심리전 작전) 팀들은 그들이 찾아간 마을에 살고 있는 피난민이나 가난한 세대들에게 건설자재와 구호물자 등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귀순을 호소하는 등 공중전단살포 및 항공기선전 등의 대적심리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었다. 민사심리전조에게는 정찰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확성기가 지급되었다.

남베트남군 및 미군의 정규심리전부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단을 제작해 주고 확성기 팀을 추가 증원하거나 영사기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CIDG 팀들을 지원했다. 또한 CIDG 요원들은 모두 일정기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는데, 미군특수부대에서 고문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심리전목표에 부합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 결과 CIDG 민사심리전조들은 산간 벽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베트남정부 당국의 접촉선을 신장시켜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도 우수한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들이 남베트남 전역으로 작전을 확대함에 따라 CIDG 수용소로

14) CIDG(Civilian Irregular Defense Group, 비정규군민방위대, 非正規民防衛隊): 적 활동을 저지하고 감시하기 위해 주로 산악요지거점을 확보하는 부대로서 주로 미국의 Green Beret팀과 그 지휘하의 산악부족으로 구성되었다.



들어오는 Chieu Hoi 귀순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베트남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이러한 정보를 베트남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귀순을 결심한 때문이었다. 선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CIDG의 이점은 대부분의 CIDG요원들이 그 지역 토착민(土着民)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그들은 그 지방 주민이나 풍속에 익숙해 있어 대민 접촉에 극히 유리했다.

## (2) 북베트남·베트남 귀순자들의 진술

### 1) 사례 (1): 북베트남군 병장이며 노동청년당원인 병사(1966년 8월 9일 歸順)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수히 많은 전단을 보았고, 방송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방송은 귀로 듣기 때문에 아무런 구애 없이 들을 수 있었지만, 전단만은 감히 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껏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나는 제33연대에서 몇 명이 귀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대는 나와 같은 사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소식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베트남방송은 귀순자들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우리를 보고 그들의 뒤를 따라 빨리 귀순하라고 호소했다. 베트남정부는 그곳으로 넘어오는 자는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귀순자에게는 의복과 의약품을 나누어 준다고도 했다.

우리는 처음 그 방송을 듣고 혹시 베트남정부가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학대하면 어찌할까하고 몹시 주저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방송을 믿기로 하고 귀순을 결심 다른 동료 3명도 설득하여 함께 귀순해 오게 되었다.

### 2) 사례 (2): Gia Dinh성 베트남 지방군 병사(1966년 10월 21일 歸順)

베트남군은 간부를 제외한 일반평민들에게는 사이공신문이나 사이공방송을 못 듣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몰래 신문이나 방송을 읽고 들었다.

주민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싸은 신문을 돌려가며 읽었고, 주민들은 파인에 풀을 팔아 라디오를 구해왔다. 베트남군은 주민들의 라디오 소유 자체를 말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은밀히 사이공 방송을 들었다. 나도 틈나는 대로 눈치껏 열심히 들었다. 베트남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도 은밀히 사이공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들었다.

### 3) 사례 (3): Dinh Tuong성의 작전을 지휘한 베트남 소대장(1966년 12월 8일 歸順)

내가 죽게 되리라는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은 바로 Thai Van Hien의 귀순 덕분이었다. 그는 내 소대의 부분대장이었는데, 지난 11월에 귀순했다. 그는 지금도 Chieu Hoi에서 근무 중이다. 그가 귀순 후 우연한 기회에 그의 형님댁을 들리게 되었는데, 정부로부터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이때 내가 귀순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 Hien의 친척이 살고 있는 Hong Tien 촌락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 친척으로부터 친절하게 Hien에 관한 것은 물론 다른 귀순자에 관한 정보도 상세히 듣게 되어 드디어 결심했던 것이다.

### (3) 북베트남 · 베트남이 평가하는 아군 심리전 사례 및 효과

#### 1) 사례 (1): 방어심리전 극비결의문, the Saigon Military Region Party Committee(1966년 4/4~1967년 1/4분기)

우리의 활동지역은 제한되고 생산은 감소했다. 간부와 사병들은 모두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Chieu Hoi'에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 ~중략~ 연합군은 'the Open Arms Program'을 더 한층 강화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베트남에게 투항을 종용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적의 기만적 선전의 진상을 폭로함과 동시에 간부들에게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줌으로써 간부들이 적정과 우군상황을 평가하는데 도

움을 주게될 것이다. 그리하여 간부들로 하여금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혁혁한 승리와 적의 파멸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2) 사례 (2): ‘보안계획(保安計劃)’ 1967년 7월 10일자에서

적(남베트남 군)의 병력증강과 동시에 간첩활동과 심리전 그리고 반동적(反動的) 정치활동도 또한 증대되었다. 적은 우리측 상황을 명백히 이해하고 평정운동요원(平定運動要員), Chieu Hoi 요원, 자위대원, 민간경비대, 특공대, 첩보원 등 상당수를 농촌지역에 파견했다. ~중략~ 적은 우리 베트공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투지를 꺾어버리려고 Chieu Hoi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략~

지난 2~3년 간 적은 돈, 여자, 뇌물 등을 사용하여 베트공 간부 및 사병은 물론 혁명대열에서 헌신중인 자들의 가족과, 해방지역을 넘나드는 상인들까지도 유혹하고 있다. ~중략~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전쟁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우리 베트공의 사기저하와 부대해체를 획책하기 위해 각종 첩보활동을 강화시켰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심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중략~

일부 베트공은 우리 혁명대열을 이탈, 적군에 가담하여 적의 안내원이 됨으로써 우리들의 혁명을 사보타지(Sabotage)하려 든다. 그러나 일부는 곧 되돌아와 그들의 가정과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고 있다. 또 우리 베트공 속에는 적의 비밀첩보원 노릇을 하는 자들도 끼어있다. ~중략~ 적의 심리전 Chieu Hoi 활동 및 투항권유(投降勸誘) 등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부대전반에 걸쳐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3) 사례 (3): 東部 Nam Bo지구 해방군, Thu Dau Mot지역부대본부, 작전협조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에서

적은 우리 베트공을 자기 측에 끌어들이기 위해 악랄한 술책을 있는 데로 사용하면서 선동과 Chieu Hoi 활동을 증가하기 시작했다. 적은 우리의 군사적 경제적 요지(要地)를 폭격함과 동시에 쟁취대상 지역주민들을 선동

하여 자기 측에 규합할 목적으로 심리전을 증가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위적인 승리를 조작할 목적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이 전략촌(戰略村), 예컨대 Hoa Loi와 Lai Thieu에 나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의약품이나 과자류 등을 배포해 주었다. 또 Binh Nhan에서 있었던 매복전투에서 우리 베트남 간부 한 사람이 사살되자, 적들은 그 유족을 방문하여 금품과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주면서 위안했다.

~중략~ 그리고 또 Thu Dau Mot군(郡)과 그 인접마을인 Ben Cat와 같은 일부 전투지역에서 적은 화성기를 장치한 Dakota 항공기를 이용하여 우리 베트남들을 저들의 Chieu Hoi 작전지역 내 허수아비 행정치하에 복귀시켜보려고 호소하고 있다. 적은 이러한 호소 후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 베트남들이 그것에 호응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폭격하거나 화학작용제(化學作用濟)를 살포하겠다고 위협하곤 했다.

~중략~ 적의 이 같은 잔혹한 행위는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주민들의 적대감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Rach Kien이나 Bung Cong 그리고 Ben Cat 남서(南西)에 있는 일부 촌락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적의 공습위협에 지레 겁을 먹고 타지역으로 도망치기까지 하였다.

#### 4) 사례 (4): 베트남의 탈영, 탈주병 분석에서

현재 적은 우리를 격퇴시키기 위해 우리의 작전계획을 탐지해 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적은 치열한 폭격 및 포격을 가해오는 한편 첩보활동과 심리전활동 그리고 Chieu Hoi 작전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보안대책을 개선해야 하며, 베트남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중략~ 지난 일년간 매 전투 전후를 기해 각 부대에서 탈주병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사단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탈주병들은 총 450명인데, 이들의 비율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간부 A, B급:5%, ② 무기휴대 투항간부:4%, ③ Chieu Hoi 정책 호응 간부:5%. 그 외 간부 베트남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거나 계

릴라부대에 재 편입되었다.

그런데 탈주병들의 탈주원인을 분석해보면 ① 정신교화와 이념지도에 관한 임무를 소홀했고, ② 일부 간부들은 권위주의적이어서 부대원들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③ 그들 대부분은 적의 폭격이나 포격과 그리고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공격 앞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으며, ④ 또한 대다수가 적이 전개하고 있는 Chieu Hoi 정책에 영향을 받았고, ⑤ 투항했거나 탈주한 베트남 간부 대부분은 적의 평화주의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적의 심리전 및 평정사업팀의 목적은 미국 측의 선전을 조작할 목적으로 우리 베트남의 반동분자와 베트남의 가족들이 사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탈영을 기도하게끔 충동하는 것이다. 진단 속에 끼어 뿌린 안전통행증에다가 “이 안전통행증은 당신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일 이 통행증을 지금 당장 이용할 기회가 없더라도 잘 간직해 두면 후일 긴급하게 이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 5) 사례 (5): 지령(指令-directives), 적의 Chieu Hoi 정책에 대한 대응책

전쟁양상이 점차 가혹해지자 일부 베트남 간부나 당원 및 병사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치열한 전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평상시 고립된 생활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향수병과 적군통제 하에 들어있는 가족들이 적에게 설득 당함으로써 적 측에 투항하거나 아니면 아예 부대를 이탈하여 시민생활로 복귀하였다.

사실 지방에서 혁명운동이 날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베트남의 수도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면이나 정신교육 그리고 지도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졌다. 또한 적은 보다 대규모적인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가뜩이나 사기가 침체해 있고 우리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또 다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변절하여 적의 Chieu Hoi 활동에 가담한 후 우리 베트남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중식시키고 적의 교활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지구당 시사담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령을 하달한다.

베트남의 용기를 고양시키고 우리동포들을 괴롭혀 온 미국인들과 괴뢰군들을 증오하게 하며, 동지와 적을 명확히 구별하여 매국적이고 호전적인 적을 타파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매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라! 모든 당 기관과 부대는 임시 적 관장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가족들과 접촉을 가질만한 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베트남가족들로 하여금 그들이 혁명대열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해하고 혁명과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고취시키는 임무를 부여하라!

그와 동시에 적의 간계(奸計)를 폭로시킴으로써 베트남 연고자들에게 적의 상투적인 기만수단을 경고해 주라! 그리고 그러한 대민접촉을 통하여 우리는 베트남의 가족들을 독려 그들의 자식이나 남편들로 하여금 영예로운 구국투쟁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방당 지부장들은 실제로 곤궁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베트남가족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다소라도 향상시켜주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베트남들에게 가족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자주 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맡은바 임무를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느 기관이나 부대 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변절자는 모든 베트남으로부터 최대의 경멸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반동분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제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배반자들을 속히 축출한다는 것 만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절자들을 다음과 같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취급해야 한다.

① 적에게 투항하거나, 혁명군에 대항하거나, 재물을 약탈하거나, 부녀자를 강간하는 자들은 발견되는 대로 즉각 즉결 처형한다. ②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뒤에 시민생활로 복귀할 목적으로 적의 Chieu Hoi 작전에 야합하는 자들은 재교육을 시킨 다음 가족들의 신원보증하에 가내연금조치(家內 歎禁措置)한다. ③ 단순히 가정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변절하는 자는 즉각 소속부대에 돌아가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득시킨다. 모든 베트남에게 상기 사항들을 철저히 교화시키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당 시사담당위원회에 보고하라!

## 4.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및 북한요원의 심리전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성격은 미군과 달랐다. 한국군의 작전은 육군 각 사단과 해병여단이 TAOR라는 전술작전 책임지대를 부여받아 초기에는 그 지대 내에서 각 중대별로 주둔 및 방어전투기지를 편성하여 기지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일차적으로 TAOR를 확보하고, 이어서 맹호와 백마사단의 전술작전 책임지대를 상호 연결하고 확대함으로써, 남베트남 정부 지배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군은 전술작전과 동시에 베트남의 지방정부와 부단한 협조하에 대민심리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편제는 처음부터 제5참모부로 ‘민사참모부(民事參謀部)’가 편성되어 운용되었는데, 물론 이 작전은 주월미군과 베트남군의 주도하에 실시되는 ‘평정계획’과 ‘평정작전(Revolutionary Development Program)’의 지원과 협조하에 실시되었다. 그 기구와 실시체계 등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실제 수행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전훈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 (1) 한국군 민사심리전의 원칙과 지침

역대 주월사령관들의 지휘방침은 “민사심리전을 통하여 100명의 적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sup>15)</sup> 최초의 실행지침으로는 ① 전 장병이 민사심리전요원이 되어, 우선 한국군이 베트남에 오게 된 것을 이해시킨다. ② 강력한 군사작전의 과시와 동시에 선전으로 베트남인으로 하여금 반공전쟁에서 연합군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한다. ③ 월남정부시책을 최대한 지원한다. ④ 한·월간의 친선을 도

15) 駐越韓國軍司令部, 앞의 책, p. 959.

모한다. ⑤베트공을 주민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는 것 등이었다.<sup>16)</sup>

## (2) 주민 분리 및 분류작전

평정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래도 평정도가 낮은 지역에는 여전히 베트공이 준동하여 양민을 방패삼아 우군(友軍)을 위협하였다. 이때는 양민 분류 및 분리작전을 실시한다. 1972년 9월 7일~18일까지 실시한 '혜산진(惠山鎭) 12호 작전' 때는 첫날부터 6일까지 O-1기에 의하여 공중방송으로 양민집결지 및 철수로를 지정해 주었다. 그 결과 1,627명의 주민이 아군지역으로 넘어왔고, 141명은 작전지역에서 보호했다가 차후에 헬기로 후송하였다. 이들을 한·월 신문 팀에 의해 분류한 결과, 93명의 베트공과 66명의 용의자를 색출함으로써 양민 분류 및 분리작전의 한 성공사례가 되었다. 심리전 요원으로 하여금 자주 마을주민과 접촉하여 평소부터 친밀과 신뢰 관계를 유지해 줌으로써 유사시에 이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

## (3) 주민선무심리전

심리전요원을 대민진료소(對民診療所)에 파견하여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주로 A, B급(비교적 우호적인 주민) 마을에는 주야로 영화 등을 상영하였는데, 상영 전에 베트남인 심리전요원으로 하여금 한국군의 활동상과 베트공의 만행에 관한 것을 방송하도록 하였다. 또 C, D급 촌락은 경계병 지원하에 주로 주간에만 영화를 상영하였다. 구호품 및 책자('자유의 벚') 등을 직접 대면하여 전달하였다. 그 결과 A, B급 마을에서는 비교적 용이하

16) 이상연(주월 한국군사령부 민사참모부 보좌관), 『주월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관련 증언』,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150.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때 영사기 및 필름의 노후화에 대비한 적 시교환조치가 필요하고, 필름은 공산당의 잔혹성을 폭로하는 내용이 필요하였다.

#### (4) 주둔지 심리작전(駐屯地 心理作戰)

사전정보에 의하여 목표를 선정후 한·미·월 심리전협조센터(CPOC) 소속 항공기에 의해 정기적으로 계속적인 방송과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전술 기지 주변의 각 고지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주야간 방송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기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센터 항공기보다는 사단이 보유한 O-1기를 활용한다면, 목표지점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그만큼 전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5) 마을 포위작전시

주로 협조주민과 첩자에 의하여 사전 정보활동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주로 심리전요원에 의하여 생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투부대의 엄호를 받았다. 전단살포는 주로 저공비행방법으로 실시되었고, 아군이 진입한 뒤에는 지상살포방법으로 하였다. 그 결과 베트공 및 동조자가 혼재한 경우는 작전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방송의 영향을 받아 투항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아군 진입을 전후하여 전 주민을 한 지점으로 집결시켜 면장 및 특수요원이 베트공과 용의자 및 동조자 등을 색출해 냄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였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첩자 및 지방심리전요원의 특별대우가 필요하며, 사전에 요원들이 자주 마을을 방문하여 친밀도 및 신뢰도를 높여

놓아야 했다.

#### (6) 동굴수색작전시(洞窟搜索作戰時)

작전 중 동굴이 발견되면 먼저 적의 은거유무(隱居有無)를 확인한 다음, 귀순 및 향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생방송을 10~20분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동굴전방 50~70m 지점까지 방송조가 접근한다. 방송 결과 무소식이면 소총병이 수색한다. 동굴 내부형태가 보통 ㄷ 또는 ㄱ자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방송청취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방송은 가능한 한 동굴입구에 최대한 접근해서 실시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 수류탄 등의 폭발물로 동굴입구를 파괴하여 확장시킨 후 전단 등을 동굴 속으로 투입할 수도 있다.

#### (7) 정글(jungle)작전시

주로 O-1기 또는 헬리콥터에 의하여 공중방송이 실시되었고, 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전단살포는 주로 지상병력들에 의해서 맨손으로 뿌려졌다. 지상방송은 특히 기지주변의 정글작전인 경우 중대 또는 대대전술작전기지(大隊戰術作戰基地) 같은 고정위치에서 작전지역방향으로 풍향까지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이동하였으나 기자제가 고성능, 고정용이었기 때문에 이동방송이 곤란하였다. 그 결과 특히 초기에는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몰과 일출 전 또는 한밤중, 적이 향수심에 젖어있을 때 호소력 있는 방송과 아울러 전단을 살포하여야 한다.

#### (8) 매복작전시(埋伏作戰時)

매복작전은 기도비닉을 요체(要諦)로 하기 때문에 지상방송을 실시한 경

우가 없었으나, 경우에 따라 적을 기만하기 위해 공중방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단살포는 매복 후 귀대시 매복요원들의 도수(徒手)에 의해 주요 접근로와 적 예상활동지역에 살포되었다. 기도비닉(企圖秘匿)의 중요성으로 보아 매복작전시 일상적인 심리전은 곤란함으로 매복 후 전단 살포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 (9) 북한파견원(北韓派遣員)의 심리전과 결과

북한심리전요원의 활동상황으로, 그들의 연간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1966년 6월 4일에 4명이 제1차로 파견된 것을 비롯하여 1967년 2월 3일에 10명, 동년 12월에 15명 등 합계 29명의 요원이 침투했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① 각종수단에 의한 선전사업 ② 한국군 및 파월 기술자 내부침투 접선공작 ③ 북베트남인 상대 한국어교육 ④ 요원에 대한 정치전쟁 교육 등이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① 사상전향 고취 및 한국군의 만행 날조유포 ② 한국정부 파월정책 비난 ③ 반전투쟁의식 고취(反戰鬥爭意識鼓吹) 및 사회주의 우월성 고취 ④ 베트남 간부 양성교육을 위해 한국군의 생활풍습 및 사상동향, 한국군과의 접촉방법, 정치전 수행을 위한 조직전개 등이 있었다.<sup>17)</sup>

대한국군(對韓國軍) 심리전 내용으로, 각종 심리전 중에서도 특히 1969년 10월 14일 맹호사단 지역에서 한국군을 가장하여 침투한 후 실시한 심리전공작이 특이하다. 그들은 '전선사(寺)'라는 사찰에까지 침입하여 승려를 살해하고, 한국군이 살해한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한국군과 주민간의 이간질을 책동하였다. 다음은 전단작전으로, 전단은 현지의 은거지(隱居地)에서 등사기(謄寫機)에 의해 제작된 것과 성(省) 노동당위원회에서 제작한 것, 그리고 남베트남 공산당 중앙국내(中央局內)의 예술문화위원회에서 제작한

17) 駐越韓國軍司令部, 앞의 책, pp. 931-932.

것들을 사용하였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단은 ① 대월남군용(對越南軍用) 전단 ② 대주민용(對住民用) 전단 ③ 대한민국군용(對韓國軍用) 전단 등이 있었다. 특히 한국군용 전단에는 ① 북한정책선전 ② 파월정책 비난 ③ 한·미·월간 이간 ④ 김일성 우상화 ⑤ 반전투쟁선동선전(反戰爭煽動宣傳)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한 전단의 내용을 보면 1966년 12월 5일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도깨비 2호 작전’ 중에 습득하였는데, 내용은 “군함에서부터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휴대해서 북베트남군으로 귀순하면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전단은 1967년 5월 26일에 청룡(靑龍) 제1대대에서 습득한 것으로 “남베트남과 남조선은 다같이 미국의 침략을……, 미국 침략자들은 우리 두 나라 인민의 적이다……, 양키를 반대하고 남베트남의 편에 서야 한다……, 부득이 당신들이 양키들과 박정희 도당의 강요로 전투장에 끌려왔다면, 민족해방전선으로 넘어 오라! 자진하여 해방군의 포로가 되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북한요원의 방송심리전으로 북베트남이나 베트남의 라디오 또는 공중방송 등은 기간 중 청취된 바 없다. 다만 습득한 전단에 의하여 ‘하노이 방송’에서 한국어 및 평양방송을 중계한다고 했다. 이를 심리전 자료화하지 않았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작전 현장에서 북한 요원에 의한 확성기방송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유언비어로 돌았으나, 그때(1966~67년)까지는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맺 음 말

인류의 전쟁행위는 인류 상호간의 폭력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순수한 ‘힘’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 거기에는 규모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따른다. 전략과 전술이란 곧 ‘패와 속임수’라는 것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전이란 인류의 전쟁사와 함께 발상(發想)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194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세계혁명은 음모와 협박과 선전선동을 주제로 하는 전쟁으로 세계를 크게 양분하였다. 공산주의 세력들은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드디어 자유세계(自由世界)에 정면으로 도전해 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 세계혁명을 위한 전면전쟁(全面戰爭)의 기세가 좌절되자, 그 후부터는 해방전쟁(解放戰爭)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전 위주의 새로운 전쟁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불확실한 전쟁(an Uncertain Trumpet)’<sup>18)</sup>이 예견되는 세계안보 전략환경 하에서 미국의 제35대 케네디(J. F. Kennedy) 대통령은 국가군사전략과 국가정치전략을 동격으로 국가안보전략화 하는 전략개념을 정립하면서, 그 실천수단의 하나로 1960년에 미국 Fort Bragg, North Carolina에 ‘J. F. Kennedy Center’를 설립하고, 그곳에 ‘특수전학교(特殊戰學校)’와 그 후 유명해진 특수전부대(特殊戰部隊: Special Forces, 일명 Green Beret), 그리고 미국 심리전부대 등을 창설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미국 특수부대의 심리전부대 일부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베트남전쟁에서의 연합군 심리전’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우리 한국군은 이 계통으로 지시와 지원을 받는 한편 독자적인 ‘민사심리전활동(民事心理戰活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75년에 베트남전쟁은 연합군이 패배하고 자유베트남정부는 항복하였으며 공산주의 호치민 정권은 그들의 일차적인 목표(남베트남의 무조건 공산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숙원이던 세계공산혁명은 끝내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베트남 자체가 세계최빈국(世界最貧國)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그 같은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그토록 증오하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경제협력을 갈구(渴求)하고 있는 것이

18) 문영일, 앞의 책, p. 337.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한편 미국의 베트남전쟁 역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승리의 의지가 결여된 국가정치전략이 군사전략을 지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이지, 전술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전쟁에서의 심리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통해서 오히려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세계는 바야흐로 또다시 테러와 반 테러 진영(陣營)으로 양분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전쟁 즉 ‘테러전쟁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테러전쟁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서 수행되어야 할 심리전 즉 ‘대(對)테러 심리전’ 또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물론 앞으로 최소 20년 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미래전쟁 즉 ‘Pandora’s Box 전쟁시대’가 올 것이다.<sup>19)</sup> 여기에서도 ‘인간에 의한 인간들에 대한 심리전쟁’은 결코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전쟁역사 속에서 심리전의 교훈을 열심히 습득하여야만 오늘의 ‘테러전쟁’과 내일의 ‘미래전쟁’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다.



19) 문영일, 앞의 책, p. 518.